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교황, 의전차량 탑승도 버거워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교황은 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아직 감기에 걸려서 글을 잘 읽을 수 없다" 며 보좌관에게 교리교육 원고를 넘겨 대독하게 했다. 다만 행사 마지막에는 직접 짧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평화를 간청했다. 교황은 이날 쌀쌀한 날씨 속에서 수요일 일반알현 행사를 주례한 뒤 휠체어에서 일어나 신자와 만날 때 이용하는 공식 의전차량인 포프모빌(교황의 차량에 오르려고 했으나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프모빌은 특수개조된 흰색 지프 밴글러 차량으로, 트렁크와 뒷좌석을 없애 교황이 뒤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교황은 포프모빌에 부착된 난간을 붙잡은 채로 탑승하려고 했으나 보조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보좌관들이 재빨리 휠체어를 다시 가져왔고 교황은 다시 휠체어에 앉아 성 베드로 광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교황청 공보실은 지난달 24일 교황이 열을 동반하지 않은 경미한 감기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1936년생으로 만 87세인 교황은 지난해 3월과 6월에도 호흡기 질환과 탈장 수술로 입원해 우려를 낳기도 했다.

###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JAMA

회개와 기도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가 오는 7월 1일(월)~5일(금)까지 텍사스에 있는 JAMA 글로벌 캠퍼스(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에서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YLC)를 연다.

이 컨퍼런스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계획됐다. 참가 대상은 금년 가을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입학하는 고등학생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월 15일까지 얼리버드 요금으로 499달러(음식과 숙박 포함)에 등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JAMA 홈페이지(www.jamaglobal.org/yic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903) 804-4016, info@jamaglobal.com



###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오 10, 37-42 (가))

오늘 복음은 자기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린 후에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십자가가 곧 구원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고통과 허무, 절망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붙잡혀 처참하게 처형당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들의 독립의지가 무참히 짓밟히고 자신들의 끈질긴 노력들이 수포와 좌절로 끝나버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 각자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 중의 누구는 불구자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질병과 사고들로 인해 복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들 중의 대부분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며, 또 그 다지 애를 쓰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잘살아 보기 위해 죽어라고 애를 쓰지만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암담한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 반면에 누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하느님께 그 책



임을 돌이며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유복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곳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일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가족이라는 표현의 혈연관계가 의미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이라는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의 태도는 곧 이웃에 대한 봉사의 삶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웃을 위하여 나의 아집

과 그릇된 소유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 버린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 뒤따릅니다. 자기 소유물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는 각자의 무게도 다를 뿐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벗어 땀겨져 버리고 쉽게 사는 방법을 택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만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이웃에 대한 봉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께서 무한한 평화와 사랑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김대영 신부-

##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